

# 광주·전남북 지역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

박용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 지역경제의 현황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나 또는 이 지역 출신의 국민 대다수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라고 하겠다. 흔히 호남 정서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나 국민 정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과연 이 지역의 경제가 실제로 뒤쳐지는지 또 뒤쳐진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광주, 전남 및 전북 지역(이하 호남권)

의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보자.

## ○ 지역 소득 수준

<표 1>에서 보듯이 지역경제의 수준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인 지역 총생산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 전남, 전북 세 지역의 지역 총생

<표 1> 지역 총생산 및 1인당 지역 총생산  
비교(1992년 현재)

구분	지역총생산 <sup>1)</sup>	1인당 지역총생산 <sup>2)</sup>
전국	239,960(100)	5,447(100)
광주	5,269(2.2)	4,504(82.7)
전남	12,358(5.2)	5,235(96.1)
전북	8,759(3.6)	4,420(81.1)
호남권	26,386(11.0)	4,847(89.0)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4.

주: 1) 단위는 10억 원,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2) 단위는 천 원, ( )안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

산을 모두 합하면 전국 지역 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데, 이는 이 지역 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5%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12.4%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이 면적에 비해 경제력이 뒤쳐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이것은 이 지역만의 문제점으로 보기는 힘들다. 문제가 되는 것은 1인당 생산성의 경우로서 이것은 1인당 지역 총생산액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같은 표에서 보면 1인당 총생산액의 이 지역 평균은 약 48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전북의 경우는 약 80%에 머물러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뒤쳐짐을 알 수 있다.

### ○ 중소기업의 분포 현황

지역 소득이나 재정 자립도와 같이 수치를

<표 2>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1991년 현재)

구분	사업체수 <sup>1)</sup>	종업원수 <sup>1)</sup>	생산액 <sup>1)</sup>
호남권	6.8	6.9	6.4
수도권	57.4	51.7	52.0
중부권	5.9	7.4	8.5
영남권	27.9	32.2	31.4
기 타 <sup>2)</sup>	1.9	1.8	1.7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994.

주: 1) 각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기타는 강원도와 제주도임.

통해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보다 구체적인 경제구조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종업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체수와 종업원, 그리고 생산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약 30% 가량이 영남권에 몰려 있다. 반면에 광주, 전남, 전북을 합친 호남권에는 7% 이하만이 위치할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소기업일수록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외부 경제효과를 잘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지역의 경우 인구 100만 명이상의 대도시가 광주 1개뿐이어서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 지역의 입지 여건이 중소기업에게 열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이 지역 경제의 문제점

#### ○ 인력의 유출 및 고령화

최근 이 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40%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인적 자원마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질 또한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산업 기반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취직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해 희소하고 그에 따라 우수한 인적 자원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과 더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큰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입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의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해 공장 건설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지방화 시대의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곳까지 비행기로 바로 온다면 2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김포공항을 거쳐서 오다보니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즉 물류 비용의 증가로 이 지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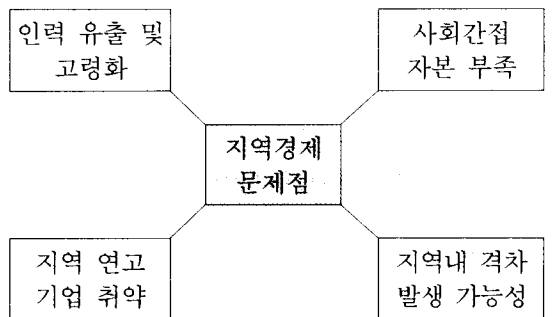
또 다른 예로 올해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 12 건 중에 8 건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3 건이 영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지 목포 신외항 다목적 부두 건설만이 호남권에서

민자 유치로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민자 유치의 경우는 각 기업이 수익성에 따라 대처하므로 이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민자 유치 참여를 기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 ○ 지역 연고 기업의 취약

이번 덕산그룹의 부도 여파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지역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중견 기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이 지역경제의 현황에서 중소기업의 입지 실태를 알아보았지만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지역 연고 기업의 취약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림 1> 호남권 지역경제의 문제점



지역 연고의 대기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10대 그룹에

드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쉽게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의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은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그 여파가 가시고 다시 지역경제가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 지역 내에서의 격차 발생 가능성

이 지역경제의 문제점의 하나는 지역내 격차의 문제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는 전주를 비롯한 도시 지역과 이외의 군 지역간의 소득 격차가 타 지역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전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 지역과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 지역간, 그리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울산 중심의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간에 발생한 소득 격차 문제를 그대로 재현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호남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 활성화 방안

#### ○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

국고 보조금의 경우 인구나 면적을 기준하여

배정할 것이 아니라 개발 낙후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한 혜택이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된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당분간은 주도할 필요가 있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자금, 각종 배후 시설, 기술력의 상승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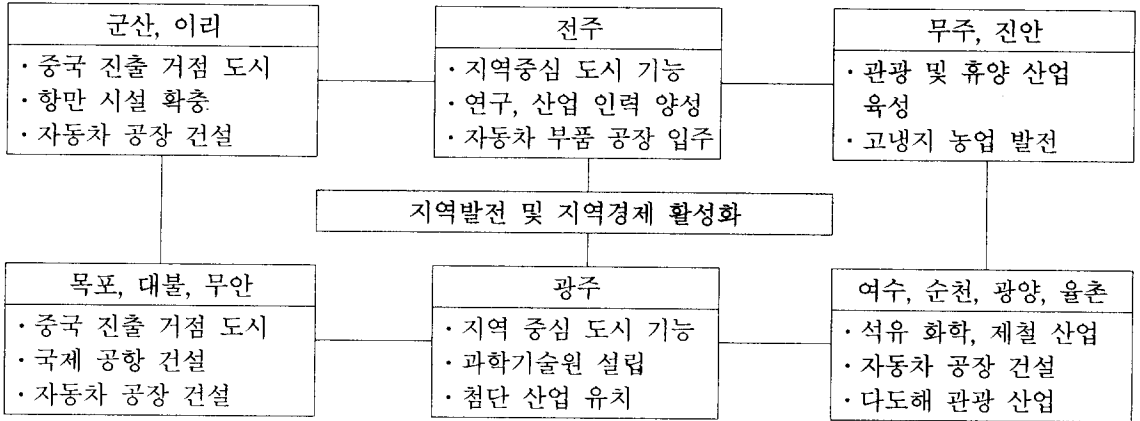
또한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민자 유치 대상 작업 선정에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때 기업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강구되는 것도 좋겠다.

#### ○ 관광 산업의 육성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 되어 있고 따라서 향후 개발의 여지가 많은 만큼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투자와 개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개발의 낙후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다.

전남의 경우 1,970 개의 섬이 있는데 대부분

<그림 2> 호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다도해 지역은 앞으로 이 지역 관광 수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또 전북의 경우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 최근 들어서고 조만간에 동계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역시 관광 및 휴양 산업이 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농수산 특산물의 국제화 추진

아무래도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이 농업을 비롯한 1 차 산업이므로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의 일환으로서 농업 및 어업 특산물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WTO 체제하에서는 농수산물도 대상이 되므로 더 이상의 저가의 대량 생산 전략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므로 고가이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농업 및 어업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특화 산업 발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 ○ 유망 산업 현황

현재 이 지역에 유치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유망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전남의 경우, 기존의 여천 및 광양 지역의 석유 화학과 제철 산업이 본궤도에 올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울산공단과 목포 지역에 새로운 공단을 건설하여 광양과 울산, 그리고 목포를 연결하는 신산업 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공단에는 현대자동차가 연산 50만 대의 규모의 승용차 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어 관련 부품 산업까지 모두 입주하면 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광주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대덕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또 전북의 경우 섬유, 제지 등 기존에 지역경제의 주축이었던 산업이 주로 경공업 중심이었는데 반해 앞으로는 자동차 조립, 신소재, 생명산업 등 성장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연산 10만 대 규모의 상용차 공장을 이미 완공하였고, 또 대우자동차가 군산에 연산 50만 대 규모의 승용 및 상용차 공장을 건설중에 있다. 이밖에는 지역의 농수산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 향후 과제

#### ○ 무리한 정책 실시는 금물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절대로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펴오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기초로 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 기적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눈에 띄는 성과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뒤따른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가 단지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편다면 우

리 경제가 밟았던 똑같은 전철을 겪게 될 것이다.

#### ○ 지역 금융 기관의 역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중에서 특히 이 지역은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금융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장기 금융 기관은 이제까지 중앙에서 해왔던 대형 프로젝트 취급 과정에서 축적한 사업성 검토 및 기술 검토와 같은 노하우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경험 부족을 메워 줄 수가 있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 윤만호 · 황길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기관의 새로운 역할”, 『KDB 산업경제』 29호, 1995. 3. 15.
- 이재의, “광주 · 전남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모색”,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나라정책연구회편, 길벗, 1995.
-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994. 1.